

‘믿음’의 양현종 vs ‘닥공’의 임기영... 승부는 무승부

KIA 흥백전 9차전 '사령탑 이벤트'

백팀 양현종·홍팀 임기영 일일감독 선수 자술에 맡기며 작전 최소화
엎치락 뒤치락 속 6-6 무승부
승부 던지거서 홍팀 승리

웃음 가득한 이벤트 매치였지만 승리를 위한 플레이가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었다.

KIA 타이거즈가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양현종과 임기영을 각각 백팀과 홍팀의 사령탑으로 해 흥백전 9차전을 치렀다.

윌리엄스 감독의 제안에 따라 마련된 '사령탑 이벤트' 매치는 '승부 던지기' 끝에 홍팀의 승리로 끝났다.

두 팀이 9회까지 6-6으로 승패를 가리지 못하면서 승부 던지기가 진행됐다. 홈 베이스에 가깝게 공을 던지는 '승부 던지기' 끝에 베이스바로 앞에 공을 세운 임기영이 '승장'이 돼 환하게 웃었다.

양현종과 임기영은 드래프트를 통해 직접 선수단을 구성했다.

선발 흥상삼을 내세운 양현종은 김규성(2루수)-박찬호(유격수)-터커(우익수)-나지완(지명타자)-유민상(1루수)-장영석(3루수)-김민식(포수)-문선재(좌익수)-최원준(중견수)으로 라인업을 짰다. 임기영은 최형우를 톱타자로 하는 '닥공' 전략을 짰다.

이에 따라 최형우(좌익수)-황윤호(유격수)-김선빈(2루수)-이우성(우익수)-김주찬(지명타자)-최정용(3루수)-나주환(1루수)-한성택(포수)-유재진(중견수)가 홍팀을 구성했다.

3루수 실책으로 시작된 1회말 백팀이 유민상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그러자 2회초 임기영 감독이 무사 1·2루에서 번트 작전을 냈다. 나주환의 번트로 1사 2·3루를 만든 홍팀은 연속 볼넷으로 승



13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의 이벤트 연습 경기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동점으로 마쳐서 윌리엄스 감독의 제안으로 양 팀 감독이 마운드에서 볼을 굴러 홈플레이트에 가까운 팀이 이기는 끝내기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번 연습경기는 양현종과 임기영이 각각 화이트 팀과 레드 팀 감독을 맡아 선수를 직접 선발, 기용하는 이색 이벤트 매치였다. /연합뉴스

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2회말 가णे이 4안타를 허용하는 등 한 번에 4실점을 하면서 백팀이 5-1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그러자 3회 홍팀 선두타자로 나선 최형우가 움직였다. 최형우는 1B-1S에서 번트 모션을 취해 상대를 놀라게 했다. 번트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다.

이날 홍팀 지명타자로 나선 김주찬도 타격감 유지를 위해 3루 타아웃 앞을 부지런히 뛰면서 행동으

로 후배들을 독려했다.

4회초 홍팀 유재진이 커트쇼를 펼치며 2타점을 만드는 등 경기는 팽팽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마지막 9회에도 선수들의 불꽃 뛰는 기싸움이 전개됐다.

6-6으로 맞선 9회말 홍팀 마운드에 마무리 문경찬이 등판했다.

장영석을 상대로 1루수 파울 플라이트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은 문경찬은 김민식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하지만 문선재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 서 양 팀 덕아웃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타석에 선 최원준이 잇달아 공 3개를 커트해 냈다. 그리고 2B-2S에서는 타임까지 부르면서 마운드 흔들기에 나섰다. 풀카운트까지 승부를 끌고 간 최원준은 우전 안타에 이은 무관심 도루로 2사 2·3루를 만들었다.

위기에 몰린 문경찬은 공격적인 피칭으로 이원빈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승리 같은 무승부를 이

끌었다.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윌리엄스 감독은 "지쳐있을 선수들에게 다른 변화와 환경을 준 것에 의미를 주고 싶다. 이런 작은 목표와 동기부여를 통해 선수단이 힘을 얻었으면 한다"며 "양 팀 감독이 전체적으로 팀을 잘 운영한 것 같다. 투수진도 잘 꾸려 마무리 투수까지 적시에 투입하는 등 첫 경기지만 잘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선수 기용 고민·작전 스트레스... 감독 할 게 못되네요”



임기영

전략은 '무조건 공격'
최형우 테이블 세터 배치
“안타·주루 최선 다한 선배들이 MVP”
감독 금일봉은 수훈 선수들에 상금으로
“이기려고 더 뛰는 선배들 모습 감동”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KIA 타이거즈의 일일 감독으로 흥백전을 지휘한 양현종과 임기영이 '존경'과 '감사'를 이야기했다.

KIA는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흥백전 9차전에서 '사령탑 이벤트' 매치를 열었다. 윌리엄스 감독의 제안에 따라 양현종과 임기영이 백팀과 홍팀의 사령탑으로 경기를 지휘하는 이벤트였다.

6-6 무승부로 9회가 마무리되면서 두 감독은 '승부 던지기'로 승부를 가렸고, 임기영이 승장이 됐다.

경기가 끝난 뒤 두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막중한 역할을 하는 사령탑에 대한 '존경'을 이야기했다.

양현종은 “선수들이 장난기 섞여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기려고 진지하게 임해줘서 고맙다. 나지완, 터커 선수 등 연륜이 있는 선수들도 끝까지 이기려고 뛰어줘서 감사하다”며 “감독이라는 자리를 처음 했는데 할 게 못 되는 것 같다. 하루종일 서 있었다니 허리도 아프고,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냐에 스트레스도 받았다. 10개 구단 감독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다”고 웃었다.

임기영도 “저보다 (우리 팀) 선배님들이 더 이기려고 하셨다. 5회 끝나고 선배들 교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뛰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감독은 못하겠다. 머리도 너무 아프고, 기용 이런 것도 복잡하다. 그래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양현종과 임기영은 선수들을 믿고 승부를 펼쳤다. 작전을 내지 않은 양현종은 대신 투수 교체 시점과 선발 흥상삼이 흔들릴 때 마운드에 직접 올라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양현종은 “시합했던 거랑 똑같이 했다. 타순이랑 백업 선수도 똑같이 기용했다. 작전은 안 냈다. 선수들이 알아서 뛰고 번트를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양현종

양현종, 작전 없이 자술에 맡겨
시합 때와 똑같이 타순·백업 기용
톱타자 김규성이 MVP
1·2군 동료들에게 피자 회식
“후배들 다독이는 방법 등 많이 배워”

했다”며 “상삼이가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형으로서 선배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나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중간에 올라가서 편하게 던지라고 했다. 후배들에게 힘들 때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는지 그런 것도 배운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기영은 한 차례 작전을 냈다. 2회 무사 1·2루에서 나주환에게 번트 지시를 내렸고, 이후 연속 볼넷으로 점수를 만들었다.

임기영은 “전략은 무조건 공격이었다. 사인은 한 번밖에 안냈고 공격으로 이기자는 생각 밖에 안 했다”면서도 1번 최형우 기용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날 캠프 후 첫 경기를 치른 최형우는 홍팀의 1번 타자로 나섰다. 하지만 세 타석에서 안타 없이 삼진 하나를 기록하는 등 임기영 감독이 기대했던 출루에는 실패했다.

임기영은 한 타석, 한 루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선배들’을 MVP로 언급했고, 양현종은 톱타자로 뛴 김규성을 꼽았다.

양현종은 “드래프트했을 때 규성이를 일찍 뽑았다. 모든 선수가 잘했지만 규성이가 오늘 좋은 역할 해줬다. 이겼다면 규성에게 MVP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승장이 된 임기영은 윌리엄스 감독이 준비한 금일봉을 수훈 선수들에게 상금으로 나눠줬다. 패장이 된 양현종은 오는 15일 1·2군 전체 선수단에 피자 파티를 선사했다.

양현종은 “오늘 점수가 타이트했는데 선수들이 단순 재미가 아닌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멋진 플레이로 어필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후반에 타이트한 상황에서 어린 선수들이 나왔는데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다”며 “감독, 코치님들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셨는데 선수들의 플레이를 색다르게 보셨을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이번 경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